믿음은 나물캐기 아니고 그네타기

(에스라 1:1~11)

1.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5.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나물캐기 아니고 그네타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은 나물캐기 아니고 그네타기'

이제 봄이 되니 현재명 씨가 작사 작곡한 "나물 캐는 처녀"의 노래 가사가 떠오릅니다. 반면에 춘향가에서 이몽룡이 광한루에 나갔을 때에 그네 타는 춘향이의 모습에 반해서 방자를 시켜 만남을 시도했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여기서 그네 타는 아가씨와 나물 캐는 아가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오 날에 그네타기 대회가 열리면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방울을 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이 오른 사람이 그 방울을 차게 됩니다. 이처럼 그네는 온 몸을 앞뒤로 움직이고 발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가능한 높이 올라가는 놀이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을 향해 몸은 수평이 됩니다. 높이 올라서 몸이 하늘과 평행선을 만드는데 그네의 재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면에 나물 캐는 아가씨들은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때까지 땅만 바라보다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에 따르면 사람은 인종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돈이나 지식의 유무로도 나누어지지 않고 남녀노소로 나누어지지도 않고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네를 타는 사람과 나물을 캐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역대기를 통해서 알듯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민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편 예레미야가 칠십년이 지나면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대로 1차로 잡혀갔던 이들이 68년이 지나 돌아오게 됩니다.
앗수르를 바벨론이 무찔렀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찌릅니다. 그런데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BC.538년에 포로로 잡혔던 유다민족을 해방하는 칙령을 공포합니다. 유다민족 뿐만 아니라 일찍이 BC.722년에 앗수르에게 망했던 북 왕국에 대해서도 같은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들도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고레스 왕의 통치영역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포로귀환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오만 명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으므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다윗의 지대한 관심 아래에 솔로몬이 주도하여 성전을 세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리는 새로 새워지는 성전은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의 관심 하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예루살렘성전이 이스라엘 한 국가에 국한된 장소가 아닌 보편적 지평위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방 사람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 성전이 세워지게 됨으로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성전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분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는 인간이냐 아니면 성전에 대해서 그릇된 태도를 갖는 인간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편성의 의미가 생겼다 할지라도 결국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섬기던 사람들은 돌아온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유다 나라 안에서 유다 민족이 성전을 그들만의 종교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방의 사람들에게 성전에 대한 관계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조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관계하는 모습이 모범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지 한 나라와 민족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전을 생활화하는 사람과 성전을 등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나물 캐는 아가씨와 그네 타는 아가씨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포로생활 칠십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많이 번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레스의 칙령을 들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1차에 정작 오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치하에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모두가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둥켜안고 좋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BC.605년부터 이루어진 포로귀환이 칠십년 세월 동안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다가 망한 것이 BC.586년이었기에 포로귀환이 작게 잡아 50년, 크게 잡아 70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자손을 낳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구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 버리고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이민 가셨던 분들이 삼십년 이민생활에 탄탄한 기반을 잡고 손자까지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오라면 오실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는 얼마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병자호란 때에 몽고에 잡혀갔던 여성들이 돌아올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몸을 더럽혔다고 해서 고향에서조차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냥 행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맨땅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50~70년을 넘게 살며 구축한 삶의 기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반을 버려야만 했는데, 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땅을 바라보며 나물 캐는 아가씨처럼 하루 종일 땅만 바라보는 사람과 그네 타는 아가씨처럼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사람의 두 종류로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는 소원이 발동되는 곳입니다. 소원을 갖는 것은 소원이 이루어 질 때에 기쁘고 만족하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 것이 담길 때마다 상번제로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어린양을 생각하며 죽는 것임을 깨닫고 생활화하는 것이 성전의 존재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네 타는 사람이 점점 더 각도를 높이며 하늘을 향해 평행선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도 이처럼 땅에서 발을 떼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늘을 향하는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하는 방법은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지면서 어린양이 번제단에서 죽어갈 때에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자꾸만 소원하게 되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을 자동적으로 소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을 지금의 내 사건으로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소원하는 대신에 이 세상 것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이러한 세상에 대해 죽은 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발을 뗀 상태에서 전심으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구리 뱀을 매단 사건에 비유하셨습니다. 불 뱀에 물렸던 자들이 장대 끝에 불 뱀을 형상화한 구리 뱀을 볼 때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볼 때에 살아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 이유도 율법을 지킴으로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불 뱀에 물려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독이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공백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백을 채우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에 물려서 온 몸에 독이 퍼지자 뱀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늑대에 의해서 키워진 아기가 자라서 늑대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뱀에 물린 자들에게 장대 위의 구리 뱀을 보게 한 것은, 배를 땅에 붙이고서 땅의 것으로 소원하던 내가 장대에 매달린 구리 뱀처럼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땅의 것을 소원하지 않고 땅에서 발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발을 뗀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물 캐는 아가씨처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물 캐는 아가씨로 살아서 안 되는 이유는 뱀의 자손으로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을 떼고 그네 타는 춘향이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벌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나물을 캐시고 삶을 가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 1장은 성전이 유대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민족의 성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고 그 생활화를 조교처럼 만방에 보여주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땅에서 발을 떼고 그네 타기하듯 사는 인간과 온 시야를 땅에 두고 나물 캐기를 하는 인간으로서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지구 위에 세워진 그네입니다. 누구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네를 타야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따라가서 가능한 한 내 마음 전체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흡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의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물 캐는 아가씨가 되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물 캐는 아가씨가 아니라 그네 타는 춘향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서 나도 모르게 세상이 담기는 나의 마음의 죽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신의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하여 그네 타는 춘향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